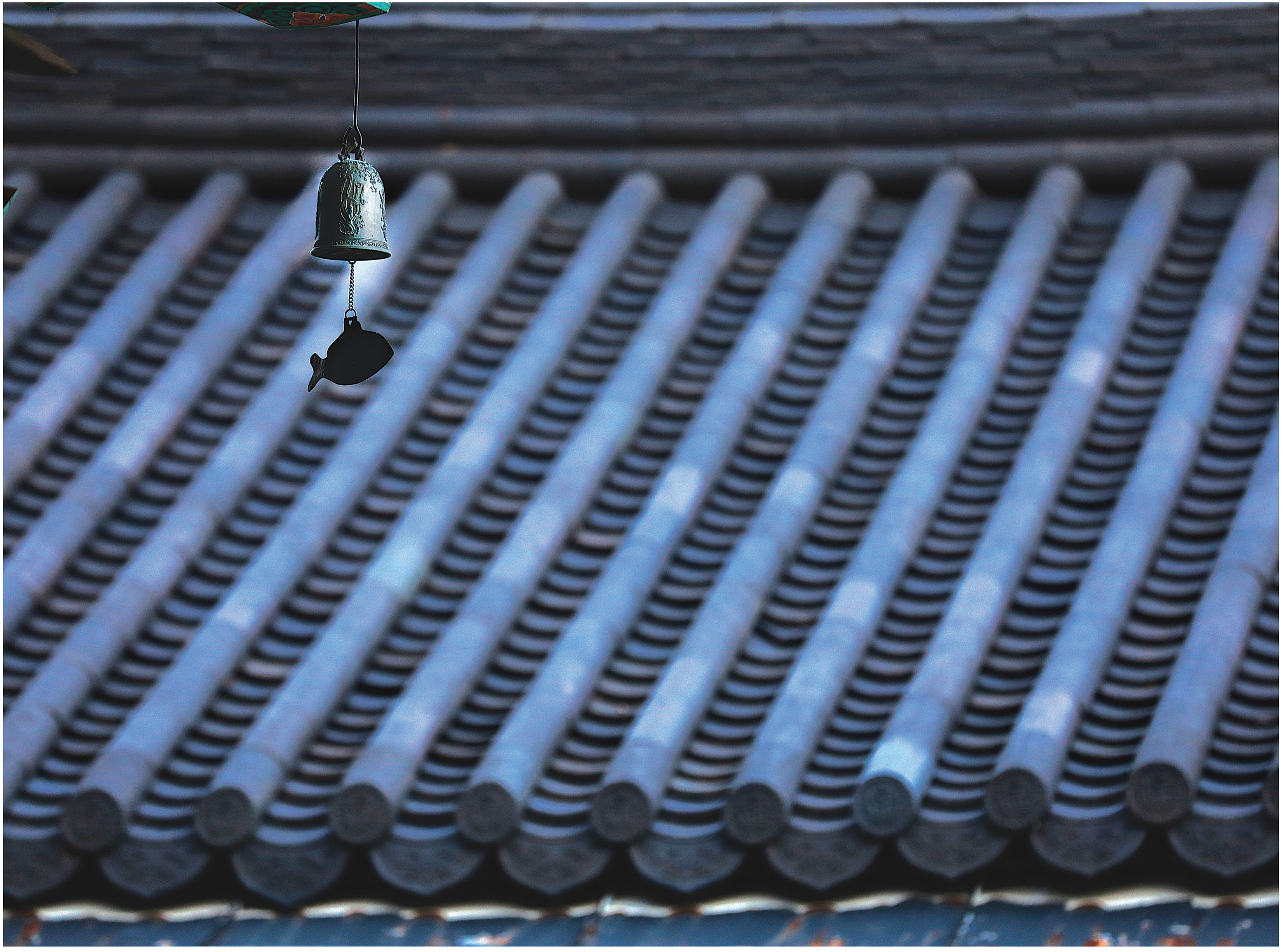


잠들지 않는 소리

누구에게나 끝내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'나'가 하나쯤 있다.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작은 흠집 하나는 어느 전생이 남긴 흔적일까. 공업의 지붕 위에 기와 한 장 얹고, 숙업의 머리칼을 잘라 지난날을 지워도 바람 부는 작은 종속엔 그렇게 전생들이 매달린다. 달빛뿐이던 그 새벽에 그렇게, 빗소리에 저무는 저녁 끝에 그렇게, 돌아올 수 없는 길 끝에 그렇게,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연과 시절 끝에 그렇게…. 작은 바람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, 잠들지 않는 종어성(鐘魚聲)이 또 가슴 속을 지나간다.

글 · 사진=박재완 기자
wanihollo@hanmail.net

◀ 경남 산청 정취암